

종돈수입과 한국의 양돈산업

원성오
(한국종돈무역)

1. 서론

매년 외화를 낭비하면서까지 값비싼 종돈을 수입하여야 하는가?

한번쯤 이에 대한 생각을 가져볼만하다.

문제는 손해와 이익의 개념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손해와 이익의 개념은 우리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추구하고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기초 논리이다.

따라서 인간이면 궁극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이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다.

어느 한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타인에게 도움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는 결국 자기한테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으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행위의 방법 차이일 뿐이다.

손해와 이익의 개념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인가 이익인가?

기업적 차원에서 손해인가 이익인가?

개인적 차원에서 손해인가 이익인가?

2. 본론

서두에서 장황한 설명을 줄이기 위하여 본론으로 들어가면 종돈의 수입은 결국 국가적, 기업적(개인적)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생각될 때 수입하게 되는 경제의 기본 논리에서 출발한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의 개념은 언제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빈약국으로 대부분의 외화를 공산품의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주요 국가중에 하나다.

세상은 공평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출만하고 수입을 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을 보라!

수출과다국으로 지나친 달러의 보유는 엔화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국가의 경제는 수출과 수입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경제 논리의 정석으로 되어있다.(물론 우리 나라는 아직 수입 초과국 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일년에 도입되는 종돈의 수입 금액은 연간 평균 약 3백만불(한화로 약 24억원)인데 이것으로 국내 종돈을 개량하여 경쟁력을 키워 돈육수입을 줄이고 돈육수출을 더 많이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종돈 1두를 약 300만원에 도입하여 500만원의 부가가치를 올린다면 이것 역시 이익인 것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람은 움직인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따라 움직이는 이치와 같다.

그런데, 논쟁과 시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한 일방 논리만을 앞세우고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그러나 덴마크나 영국, 화란처럼 자체에서 종돈을 생산·활용하고 여분을 수출한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들 나라와 우리 나라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들 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나 생활 여건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 나라는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돈육과다 소비국이고 또한 경작지가 대부분 밭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주식이 쌀이고 경작지가 대부분 논이다.

당연히 이들 나라에서는 돼지를 키워 육류를 생산, 공급할 필요성과 용이성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었기에 돼지 생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관심이 많으면 지식과 기술은 쌓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육종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고 우수한 종돈을 생산,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3. 결론

종돈 육종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아니 4~5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영세규모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판이니, 터 좋은 종자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며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수입하여서라도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한가지 제언하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나라 돼지의 99%는 모두 외국에서 수입된 종돈의 혈통인데, 이제 좀 그만 수입해도 안되겠는가 라고 한다면, 방법은 있다. 그것은 덴마크 방식으로 뭉치면 된다.

우리 나라가 덴마크 방식으로 국가적인 규모로 양돈을 운영한다면 확신킨테 향후 10년 이내에 종돈을 수입하지 않아도 자체 조달이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수많은 양돈관련 단체가 있고 정부기관이 있고 육종농장이 있지만 모두 제각기 이니, 유전자의 사용 효율이 떨어지고 소모가 심하여 종돈의 수입 없이는 종돈능력의 퇴화를 막을 수가 없다.

덴마크 방식을 여기에 모두 언급하기에는 너무 지면이 제한되어 설명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국의 양돈산업 미래는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뭉쳐야 하는 것이다.